



▲ 한국조에티스(주) 루이스 하비엘 로하스 대표이사

## 한국화이자동물약품, ‘조에티스’로 새출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품 생산… 고객의 수익 창출에 도움 될 것

한국화이자동물약품이 지난 2월 1일 화이자 그룹에서 분리되어 ‘한국조에티스’로 사명을 변경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이와 관련 루이스 하비엘 로하스 한국조에티스(주) 대표이사는 지난 3월 21일 서울 역삼동 소재 본사 사무실에서 축산전문지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동물용의약품의 새로운 브랜드로 재탄생한 ‘한국조에티스’를 소개했다.



▲ 지난 3월 21일 축산전문지 기자들과의 간담회 현장

이날 루이스 하비엘 로하스 대표이사는 “우리 기업명인 조에티스(zoetis)는 Zoetic(생명과 관련된)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로써 동물원(zoo), 동물학(zoology)이란 단어와 그 어원을 같이하고 있으며 이는 ‘삶과 함께하는’이라는 뜻을 지닌다”며 “이는 즉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동물들을 키우고 보살피는 전 세계의 수의사와 축산 농가들을 지원하는 기업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루이스 하비엘 로하스 대표는 이번 사명변경을 통해 한국조에티스의 비전을 ‘세계 최고의 동물약품 회사’로 키울 뜻을 밝혔다.

실제 1950년 화이자 동물보건사업부에서 출발한 조에티스는 6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기업으로 전 세계 120여개국에 진출해 있으며, 10여개국에 25개의 생산공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소, 돼지, 닭 등을 포함 8가지 핵심동물 종과 5가지 주요 제품군(백신, 구충제, 항-감염제, 약용 사료첨가제, 기타 의약품)

을 포함하는 300개 이상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2011년 기준 매출액은 약 42억원이다.

루이스 하비엘 로하스 대표는 “조에티스는 특히 R&D 분야에 1,000여명의 연구원이 배치되어 있을 정도로 연구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화이자그룹에서 독립되었다고 해도 이러한 유능한 인재들이 그대로 남아

기존의 우수한 제품들을 고객들에게 차질없이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에티스 사업 수익중 젖소, 육우, 돼지, 가금류 등 경제 동물 매출이 회사 전체 매출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양계분야는 10%이내이다.

루이스 하비엘 로하스 대표는 “조에티스 내 양계사업부가 생긴 지 몇 년 되지 않아 아직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Embrex社와 Port Dodge社를 인수한 것은 사업확장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으로 향후 2~3년 이내 양계 쪽에도 친환경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에티스는 해외 동물약품 판매량 1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국내에서는 점유율이 낮다”며 “이번에 독립해 새 출발을 알린 만큼 조에티스의 최고의 인재들과 함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여 가겠다”고 향후 포부를 밝혔다. ☺

- 글 · 김효진 기자(hj@chicken.or.kr)